

사람과 사람사이



생약재배 현장시찰

■ 임연학

회장은 최근 수확기를 맞은 국산 한약 재작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대 생약재배지를 돌아봤다.



수입이 늘고 있는 감초 국내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생약조합장에 선출

■ 이종렬

인제군 사무소장은 지난 9월 열린 강원도 남부 생약협동조합 이사회에서 제3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중국 감초산지 견학

■ 황인구

부회장은 9월 초 감초의 최대 생산지인 중국 감숙성 영하지역을 방문 재배지의 기후 토질 일조량 강우량 등을 조사하고 감초 종자번식 방법, 수확관리요령 등을 견학. 황부회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최근 식용료 및 제약원료, 한약제조용으로



제3회 얼음골 동의제

밀양군사무소, 생약전시

한의학의 태斗 유의태 선생과 그의 제자 허준 선생의 고귀한 인술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3회 얼음골 동의제가 지난달 5일부터 6일까지 한의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



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얼음골 동의제집전위원회가 주체하고 밀양시 한의사회와 천황사, 밀양신문사가 주관한 이번 동의제는 4일 전야제와 산신제를 시작으로 밀양시한의사회의 한방의료봉사, 얼음골 신전전, 우리농산물 전시회, 기체조사법, 우리향 및 생약전시회, 백중음식 시식회 등 두 성현의 뜻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한국생약협회 밀양시사무소(사무소장 손백현)는 행사기간 동안 밀양군 특산품인 맥문동을 비롯 재약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등 50여 종류의 우수국산한약재와 수입약재를 비교전시함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영남일원의 한의약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사

「任」

△경남 진해시 공관장장 김종수(8월20일부) △강원도 태백시 공관장장 장금수(9월2일부) △철원군 공관장장 송계석(9월10일부) △동해시 공관장장 김원웅(9월22일부) △경북 경산시 출장소장 이상수(9월10일부)

「免」

△경남 진해시 사무소장 김종수(8월20일부) △전남 장흥군 사무소장 겸 공관장장 최윤경(9월2일부) △경기도 연천군 사무소장 양윤식(9월10일부) △여주군 사무소장 남준목(8월18일부) △강원도 태백시 공관장장 우대기 △철원군 공관장장 이강섭 △영월군 사무소장 황수하(이상 9월10일부)

내방

△농림부 채소특작과 임현언 사무관 △채소특작과 정종용 △봉화 고냉지약초시험장 김수용 실장외 4명 △(사)한국야생환경보존협회 정재수 회장 △한국소

비자보호원 여춘엽 과장 △농산물검사소 장맹수 사무관 △배명철 고문 △김동균 고문 △정형모 부회장 △이문섭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임완수 지부장 △김성배 지부장 △이지대 지부장 △배성한 지부장 △이영갑 지부장 △엄경섭 이사 △임경학 이사 △김용한 이사 △함영완 이사 △장지홍 이사 △김종근 이사 △권순직 이사 △박종연 이사 △장영철이사 △김동윤 이사 △허영 감사 △성백덕 감사 △이인기 사무소장(경기도 포천군) △정영석 금산군 공관장장

부 음

■ 임연학 회장 부친 임영준옹이 8월29일 토요일 노환으로 별세

■ 이정선 대리 모친 박진숙 여사가 8월20일 중풍으로 별세

■ 이관구 서산군 사무소장 부친이 8월 29일 지병으로 별세

이사회 이모저모 이사회 이모저모 이사회 이모저모 이사회 이모저모 이사회 이모저모 이사회 이모저모 이사회 이모저모

통상 제89차 이사회

○…통상 89차 이사회가 8월 25일 강원도 원주소재 치약산 코레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회 개최여부와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도매법인 설립 추진여부와 구체적 방안 △수입적용성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등에 대해 논의됐다.

제5회 전시행사 잠정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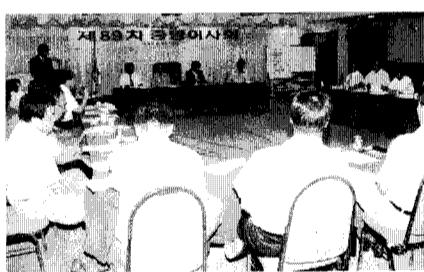
○…전시회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의 전시행사가 더 필요하다”는 측과 “행사개최에 소요될 경비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며 행사개최 유보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이 대립한 가운데 찬반 투표 실시. 투표결과는 10대12로 개최하자는 쪽이 우세. 그러나 9월9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과 경비창출문제를 감안할 때 올 행사개최는 위

험부담이 많다”는 판단아래 잠정유보됐다.

재정운영위 구성안 폐지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 백문기 이사는 “안정기금이 협회재정으로 통합된 상태에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와의 역할 중복을 초래,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자칫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며 재정운영위 폐지안을 제기함에 따라 투표결과 재정



위원회 구성자체가 백지화됐다.

생약연구위원회 활용키로

○…수입적용성심의위원회는 생약연구위원을 활용하

돼 전문재배회원으로 보완 구성키로 하는 한편 도매법인 설립추진안도 16대5로 통과.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차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도매법인 설립추진을 위해서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필요에 따라 정관내용에 목적사업실내용을 첨가키로 했다.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혜택: 1. 생약재배기술지도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 할인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회비:

개인-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단체-13만원(연회비 12만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세요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줄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 (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 하시기 바라며 연간발송료 (1만원)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우체국 010983-0006910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